

慢性肝疾患 小考

학술위원 金 俊 默
(德壽 한약방)



慢性肝疾患의 治療

近來 韓國에도 肝疾患의 患者가 해마다 增加一路에 있어 醫學界의 非상한 關心事로 注目을 끌고 있는 此際 韓方에 當務하고 있는 專門人으로서 이에 對處할 學術的 研修의 緊要性에 따라 여기 近着 外誌文獻을 中心으로 이를 吟味 略述하고자 한다

1. 肝臟의 機能

肝臟은 體重의 약 50분의 1의 무게로 1.5kg이 되며 1분간에 1리터(1)이상의 血液이 흐르며 500種 이상의 化學的인 일을 處理하는 新陳代謝의 中 椎센타이다 따라서 肝臟機能이 充分치 못하면 新進代謝가 圓滑치 못하고 老化現象이 빨리 오게 된다 肝臟이 人體에서 얼마나 重要한 臟器인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 機能을 大略 들어보면

1) 新進大謝作用

糖質(含水炭素), 단백질, 질소(지방), 수분 등의 新陳代謝

2) 解毒作用

腸에서 흡수된 유독성물질이나 신체중에서 생성한 有害物質의 解毒處理(알콜, 니코틴, 수면제 등)로 副作用의 輕減

3) 膽汁의 생성

4) 血液의 貯藏庫로서 血液循環의 調節

肝臟은 체내 血液의 20~30%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血液貯藏탱크(韓方에서 自古로 血室로 表現)로서 身體循環의 血液調節

5) 血液의 凝固와 적혈구의 處理

6) 비타민의 활성화

他臟器에서 못보는 비타민의 多量貯藏庫로서 비타민 본래의 작용을 當爲하는데 肝기능 障礙의 경우 身重 因倦 食慾不進 症狀 등 비타민 결핍과 닮은 症狀을 나타내게 된다

7)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

肝臟이 건장한 女性은 성적인 안정과 精神狀態도 안정된다 肝臟장애가 오면 女性호르몬이 增殖하여진다 男性도 肝이 나빠지면 女性호르몬이 늘어 女性化되어 脫毛가 되고 乳房이 커진다 腦下垂體는 여러 호르몬의 생성과 조절을 한다 이 下垂體는 前葉과 後葉이 있어 前葉은 尿量을 增加시키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肝臟장애가 오면 腎臟에 작용하여 尿量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肝臟病者에게는 尿量감소가 보통 일어나 마침내 腹水症 등을 유발케 된다. 또 肝臟은 副腎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肝이 나빠지면 副腎이 나빠지고 副腎이 나빠지면 肝臟이 나빠진다 이상과 같이 肝臟이 解毒 生産 貯藏 등 新陳代謝의 化學處理工場을 人工的으로 建設한다면 烏山工場의 몇 배가 되는 큰 大工場의 구실을 肝臟이 해 내는 셈이니 얼마나 중요한 臟器인가를 새삼 알게 된다

2. 肝炎

肝炎이란 現代醫學用語로서 韓方에서는 肝炎이란 병명이 없다 급성간염, 만성간염, 지방간 유행성간염, 혈청간염, 약제성간장애(신약품 맹신에 의한 남용) 잠재성간장애(전간증후군) 간경변, 그리고 황달이 있는 증, 없는 증 등등 간염의 분류는 많으나 韓方治療는 그 증상에 따라 韓方的 「證」을 참고로 하게 된다 古典中에 「肝病者, 兩脇痛引少腹, 令人善怒」라 하였다 小腹部(下腹部兩側)나 兩脇은 모두 肝經絡의 走行路로서 肝환자에게 가장 많이 출현하는 증상은 이 부위의 痛症이다. 또 하나 표면적증상이 화를 잘 내며 정신적 불안정증이다 그러나 「鬱」증상은 정신과질환으로 돌려버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兩側脇痛, 善怒이 두 症狀이 肝炎의 特有性으로서 韓方으로는 「脇痛」鬱症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黃疸形 肝炎은 「黃疸」에 들어가고 腹水 胸水 등의 浮腫은 「水鼓」塊積症狀은 「疝積」으로 분류된다 肝梗變의 경우 잇몸이나 食道의 出血, 下血의 出血症狀에 오는데 出血病은 모두 「血證」에 든다. (貧血도 血의 病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관습상 대체로 血證은 出血疾患을 가리킴) 肝炎이 만성화, 장기화하여 正氣가 虛하여 온 경우는 「虛勞」로 된다 이와 같이 症狀의 類別에 따라 몇 개의 「證」을 參考하여 가며 治療法을 세워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慢

▣ 학 술

性肝炎을 중심으로 다음의 4類型(타입)으로 分類하여 辯證論治를 展開하여 보고자 한다

病因 病理

1. 肝氣鬱結

肝氣查結은 肝炎의 초기에 많이 出現하게 되는 것을 본다. 肝氣가 停滯하여 일어나며 원인은 情緒의 失調로 일어난다 불만, 우울, 불쾌감 등의 스트레스는 肝을 상하기 쉬운 요인이 된다. 肝이 지닌 疎泄機能으로 정상상태에서는 肝氣는 봄을 만난 수목과 같이 싱싱하게 성장하여 사방으로 뻗어간다 즉 氣血이 停滯없이 流注하여 전신에 미치는 상태이다 그러나 精神的 動搖로 肝主 기능인 疎泄機能이 失調되면 氣血의 流動이 둔화되고 通氣의 상태는 깨어져 「氣血不和」를 낳게 된다 초기에는 血보다 氣의 停滯가 먼저 出現되며 肝氣의 不調和가 눈에 띄고 血의 停滯는 그 다음에 나타난다

2 瘀血內停

氣라는 것은 血 水를 움직이는 動力이다. 氣 자신의 循氣力이 약화되면 脈管中の 血도 停滯된다. 즉 血絡, 血管毛細部에 停滯되기 쉽고 「絡痺」로 된다 絡痺는 마침내 瘀血을 형성케 되고 氣血의 流動을 방해하는 狀態를 더욱 악화시켜 「不通則痛」으로 痛症을 나게 한다 氣滯段階에서는 비塞感, 脹痛, 不快感이 주로 있으나 固定痛이 현저하여지면 病은 氣滯보다 더 진행된 것으로 보게 된다 肝氣鬱結이 瘀血內停으로 진행되는 가능성은 十分 推察케 된다 疼痛, 舌暗 등의 症狀이 出現되는 것 같으면 理氣藥으로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血分藥도 兼해야 될 것이다

3 肝陰不足

제1段階의 肝氣鬱結에서는 氣의 循氣가 停滯되고 제2段階에 들어가면 血循의 停滯인 實證을 나타낸다 그러나 病이 장기화하여 또는 肝硬變이 되어 出血이 返復되고, 陰血의 消耗가 계속되면 肝의 「虛證」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肝虛라고 하면 肝血虛를 가리킨다. 肝의 主된 生理機能은 「疎泄」과 「臟血」인 것이다 肝은 血液을 저장하는 臟器이므로 肝이 弱화되면 저장되는 血량도 적어 진다 또 血은 陰에 속하므로 肝血虛는 肝陰虛라 하여도 무방하다 肝虛證은 肝氣虛니 肝陽虛니 하는 일은 적고 陰血不足이 제일 많다. 血이 肝을 滋養치 못하고 肝기능도 정체하고 또 肝의 經絡이 走行하는 部位의 絡脈, 血脈도 血의 榮養을 잃

으니 病은 장기화되게 되는 것이다

4 濕熱侵入

濕熱症狀은 혹 등한시되기 쉬울지 모르나 급성간염, 만성간염은 모두가 濕熱과의 관계가 크다 만성간염의 환자의 舌狀이 짙가 두껍고 누렇다 이것은 體內的 濕熱停滯를 示唆하는 것이다 濕과 熱이 함께되면 대단히 골치 아프다 濕이 차지게 體內에 장기정체하면 熱化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또 濕과 熱을 分離키 어려우며 빼기도 곤란하다 清熱만으로는 濕이 남게 되고 利濕만으로는 熱에 대한 힘이 부족하다 때문에 濕과 熱은 반드시 함께 치료치 않으면 안된다 濕의 차진 성질은 肝氣의 動性を 빼앗는다 즉 肝의 能한 條達狀態를 阻害하고 肝과 함께 肝에 연이은 膽의 疎泄기능을 失調시킨다 膽은 濕熱의 侵犯을 받기가 쉽고 膽汁의 분비가 장애되어 口苦, 黃疸의 症狀이 出現한다 濕熱이 病因이 되는것은 傳染性이 강하고 좀처럼 낫지 않는다 熱이 내려도 상승하는 症狀이 返復되는 특징을 갖는다 濕熱의 존재는 肝氣鬱結, 瘀血內停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지만 主義를 쏟을 必要는 있다 濕熱이 있을때에는 小柴胡湯 도는 補藥을 써서는 안된다 濕熱을 除하는 治療法이 要하게 된다

辨證論治

1 肝氣鬱結

肝炎中에서 가장 흔한 症狀이 肝의 疎泄機能이 低下, 즉 氣의 循氣가 좋지 않아서 오는 경우이다

(1) 症狀

① 脇痛 氣는 無形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體內모든 곳까지 流注하고 있으나 때로는 일시에 쪽 集中하고 때로는 짝 發散한다 氣가 結하면 痛하고 結이 풀리면 痛은 그친다 (消失) 이러한 氣의 특징에 따라 痛症도 固定痛이 아니고 背心, 兩脇, 胃部位 등등 여기 저기에 出現하는 遊走痛이다.

② 焦燥, 善怒. 疎泄機能低下로 流氣停滯하여 情緒不安氣鬱을 가져오고 鬱로 인하여 痛症을 出現

③ 食慾不振, 트림 木克土로 食慾不振, 가스로 고여 트림이 잘 나는 증상에 나타난다

초기의 疎泄기능 저하의 단계에서는 脾보다 胃의 症狀, 肝胃不和 증상이 나타나서 食慾不振, 또는 泄瀉, 트림, 惡心 등 胃氣上逆 증상이 많다. 정상시는 胃氣는 늘 下降하게 되는데

□ 학 술

이의 變調時에는 위로 逆行되기 때문이다.

④ 舌苔 舌苔가 열은 (薄)것은 病邪가 비교적 얇은 부위에 있음을 가리키고 病의 초기단계이므로 豫後는 양호하다

⑤ 脈弦 肝의 대표적 脈으로서 痛症이 심할때에도 弦脈이 나타난다

(2) 治法 - 疎肝理氣

우선 肝의 疎肝機能을 調整한다. 疎肝을 舒肝이라고도 한다.

(3) 方劑 - 逍遙散(疎肝, 健脾, 補血)

疎肝의 代表方劑로서 疎肝의 作用은 小柴胡湯보다 強하다 肝鬱, 脾虛, 血虛의 3狀態를 解決하는 方劑로서 肝鬱의 治療가 中心이 된다

(4) 組成과 解説

柴胡] 舒肝	當歸] 養血, 柔肝				
薄荷		白芍					
白朮	— 燥濕] 健脾	炙甘草	— 溫和	+	山梔子	— 清熱
茯苓	— 滲濕		芍藥	— 調和			牡丹皮

柴胡, 薄荷는 肝鬱을 푼다 柴胡는 疎肝의 代表藥이며 薄荷도 芳香性으로 解鬱한다 또 解表藥으로 강한 발산력을 가진다 장기화된 病에 대하여 대량의 柴胡를 쓰면 體氣力을 消耗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니 柴胡를 安易하게 長期, 大量 쓰는 것은 피할 것이다 疎肝의 目的으로는 少量으로 충분하다 또 柴胡의 발산억제를 위하여 반드시 芍藥을 가한다

(5) 加減 트림, (胃氣上逆) 症狀에는 半夏를 가미하거나 半夏厚朴湯을 使用한다

① 加味, 逍遙散(疎肝解鬱, 陽血清熱)

周知하는 바와 같이 逍遙散이 梔子 牡丹皮를 加味한 方이다 肝鬱이 장기화되면 體內에 熱이 차여서 微熱증상, 咽乾, 舌紅, 舌苔黃 등의 症狀을 보게 되는데 梔子が 쓰이게 된다 熱의 症狀이나 氣血의 停滯로 痛症이 심할때에는 加味 逍遙散이 더 좋다

② 四逆散(理氣疎肝) 四逆散은 逍遙散中の 白朮, 茯苓(健脾藥)이 빠져 있으므로 결국 肝에 한장된 症狀에 쓰면 좋다

組成과 解説

柴胡	— 疎肝	芍藥] 養肝血, 上痛
枳實	— 理氣	甘草	

③ 柴胡疎肝散(疎肝理氣)

이 方은 四逆散에 香附子, 川芎, 眞皮를 加味한 것이다 원래 脇下疼痛의 治療方第로서 中國에서도 첫째로 꼽히는 處方으로 痛症에 대한 效果가 매우 좋다

組成과 解説

四逆散(枳實 換 枳殼) + 香附子 川芎 } 活血, 理氣, 止痛 · 陳皮 — 理氣健脾

枳實은 理氣보다 破氣라는 것이 適切하며 作用이 强하게 氣를 下降시킨다. 大承氣湯은 通便의 目的으로 쓰이는 것과 같이 腹部에 作用하나 脇部가 脹하고 胸部가 비悶하는 胸部症狀에 對應하는데는 枳殼이 適合하다 이와 같이 香附子, 川芎의 血分藥을 2種 加味한 것만으로 逍遙散보다 훨씬 강한 處方이 된다 逍遙散으로 痛症이 가지지 않을 때에는 柴胡疎肝散을 쓸 때가 많다

④ 小柴胡湯(和解少陽)

本方은 少陽證을 治療하는 方第로 病邪의 半表半裏에 있을 때에 쓰며 解表와 補藥이 配合된 著名한 處方으로서 脾虛를 隨伴한 肝鬱과 肝熱을 해결하는 方이다

• 組織과 解説

柴胡 ————— 疎肝
 黃芩 — 清熱 ———— 疎肝
 人蔘 ———— 扶正氣, 健脾
 甘草 ———— 扶正氣, 健脾
 大棗 ———— 扶正氣, 健脾
 半夏 ———— 和胃
 生薑 ———— 和胃

小柴胡湯은 현재, 少陽證만이 아니라 廣範圍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原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中國에서는 原方만이 아닌 加減方을 많이 쓴다

× 小柴胡湯의 加減

a 熱症狀 · 반하 인삼은 溫藥으로 熱을 助長하니 除한다 만성간염의 환자는 舌赤, 苔黃 등의 熱症狀의 케이스가 많아, 小柴胡湯의 장기사용은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b 津液不足 口渴이 있을 때 柴胡 半夏는 乾燥性이 강하므로 除하고 芍藥을 加한다

c 痛症이 심하다

熱의 症狀이 전혀 없고, 痛症이 심할 경우 冷性의 黃芩을 除하고 芍藥을 가한다

d. 浮症이 있을때 加 茯苓

e. 脇痛 大棗의 甘味는 달하기 쉬우니 除하고 活血의 丹蔘을 加하여 代한다

□ 학 술

이상과 같이 小柴胡湯은 症狀에 따라 臨機應變으로 가감하여 使用할 것이다. 肝氣鬱結에는 사용되지만 瘀血停滯가 있을때, 瘀血에는 藥力이 不足하므로 桂枝茯苓丸을 使用한다 肝陰不足으로 舌乾하고 舌苔가 없으며 微熱이 있을 경우, 小柴胡湯은 陰血을 補하는 藥이 적을 뿐아니라 柴胡, 半夏는 오히려 血을 耗損하니 逆效果를 가져온다 長服은 피하여야 한다. 특히 안좋은 것은 黃니썩가 심한 濕熱侵入의 타입에서는 清熱의 黃芩은 좋으나 人蔘은 방해가 되니 注意를 요한다 臨床上 虛證에는 使用이 可能할 것이나 人蔘을 除하는 케이스가 異例의으로 많다 肝炎熱症狀에는 不適合하다 이와 같이 모든 肝炎에 이 方을 適用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 밖에 本方의 柴胡는 上昇하는 傾向이 있으므로 高血壓에는 안쓴다 溫性의 人蔘, 燥性의 半夏, 動性의 柴胡는 出血을 惡化시킬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韓方에 의한 肝機能장애

新聞記事에 대하여

前日, 日本 神奈川縣의 新聞에 「漢方에 의한 肝 기능장애-犯人은 小柴胡湯」이란 기사가 게재되었다 단백질의 合成을 억제하는 可能性이 있다고 써 있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모든 肝炎에 小柴胡湯 使用은 不適當하며 오히려 나쁜 結果를 초래할 경우조차 있다 이 新聞기사만으로 詳細한 判斷은 도저히생각할 수 없다 바른 辨證이 안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어느 洋醫로 부터는 韓方藥의 사용으로 肝細胞가 활동을 시작하여 體內의 毒物을 外部로 내보내려고 하여 一時的으로는 血液검사 結果가 惡化될 可能性도 고려될 수도 있다는 意見도 나왔다 誤治라는 날말도 있듯이 韓方藥도 誤用하면 나쁜 結果가 나오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나, 韓方藥이 나쁜약으로 인식되는 것인 困難하다

(이상은 中醫臨床誌 90년 6월號 게재된 것을 拔萃)

2 瘀血內停

(1) 症狀

① 固定痛, 刺痛 瘀血停滯로 流注가 그친 상태, 痛處가 一定하고(不動)痛症은 加重하여 쑤쑤 꾸시는 症狀이다

② 夜重痛

③ 비塊 肝腸의 肥大로 비塊를 이룬다

④ 舌質紫暗 舌色은 瘀血의 存在判斷에 제일 좋은 재료이다 肝硬變의 段階에서는 대체로 紫舌色을 모하고 다소 暗色을 띤 舌은 瘀血의 停滯를 가리킨다

⑤ 脈沈澁 深部가 血流不良하면 沈澁脈을 나타낸다 瘀血을 強調하는 脈인 것이다

(2) 治法 去瘀通絡

(3) 方劑

① 桂枝茯苓丸(活血化瘀)

원래 婦人科處方으로서 生理痛, 生理不順, 子宮筋腫 등을 治療한다 藥의 作用이 下向性으로 肝膽의 部位에서는 좀 벗어러지며 藥力도 다소 부족되는 느낌이다. 小柴胡湯과 桂枝茯苓丸, 逍遙散과 桂枝茯苓丸을 使用하여 쓰면 좋다.

② 復元活血湯(活血去瘀 疎肝通絡)

中國에서는 肝膽病의 脇痛用 第一方이다 李東垣의 處方이다 方意는 活血去痛, 元氣恢復의 뜻인 方名임 循氣 去瘀 生新하는 處方으로 活血作用이 強하여 특히 脇痛에 잘 쓰인다 瘀血이 있으면 氣도 停滯되니 必히 理氣도 해야 된다.

• 構成과 解說)

當歸 4g, 桃仁 4g, 紅花 2g, 穿山甲 2g — 活血去瘀, 消腫止痛

大黃 15g — 活血去瘀, 通下(引瘀血 下行)

柴胡 6g — 疎肝(引絡藥)

天花粉 4g — 清熱生津, 消腫

甘草 2g — 調和

外科的 打撲損傷에 쓰이는 方이나 肝의 消腫과 止痛에 實效한다 活血作用이 대단히 강하다.

이 處方은 活血이 主治이므로 補藥은 當歸뿐이다 疲勞感이나 虛症狀이 강할 때에는 補中 益氣湯 등 補劑를 調合하는 것을 要한다

③ 鼈甲煎丸(活血化積)

金匱要略의 處方으로 活血藥을 중심으로하여 肝脾의 肥大와 痛症을 目標로 쓴다

(補) 肝膽病에 쓰이는 活血藥

赤芍藥, 紅花, 丹蔘, 降香, 澤蘭, 延胡索, 川練子, 王不留行, 鬱金

3 肝陰不足

(1) 症狀

① 隱痛 - 肝血이 虛하여 滋養이 안되어서 일어나는 痛症으로 콧콧 아픈 경우, 虛證의 疼痛은 難治

② 咽乾, 煩熱, 焦燥 - 陰虛로 體內水液不足하여 虛火抑制가 안됨으로서 일어나는 陰虛內熱의 症狀

③ 眩暈, 眼精 疲勞 - 血虛症狀으로 인하여 肝에 속하는 눈의 症狀의 出現, 혹은 血이 腦

□ 학 술

를 滋養치 못하여 일어나는 眩暈

④ 舌紅, 苔少 - 內熱과 津液不足을 나타내는 것

⑤ 脈細弦數 - 肝(弦脈)의 血虛로(細脈), 虛熱(數脈)이 출현

(2) 治法 - 補陰血, 柔肝

陰血을 補하여 肝을 和하게 한다

(3) 方劑

① 六味地黃丸, 杞菊地黃丸(滋補肝腎)

「肝藏血하고 腎은 藏精한다」肝腎이 藏하는 精이나 血도 모든 穀物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源은 동일한 것이나 兩者의 관계는 밀접하게 깊다 精은 血化하고 血은 淨化되는 것이니 臨床에 際하여서는 肝의 症狀이 없어도 肝藥을 넣고 腎의 症狀이 없을 경우에도 腎藥을 加하여 肝과 腎을 함께 治療하는 것을 留念한다 이러한 發祥에서 地黃丸이 案出된 이치이므로 例하면 地黃丸中の 山茱萸는 肝藥인 것이다 地黃丸類는 장기사용하여도 좋겠으나 澤瀉 茯苓 등 利水藥이 많은 것이 마음에 걸리고 또한 陰血이 부족한 몸에 利尿藥의 多用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減量할 필요가 있다 이점이 고려된다면 地黃丸을 장기사용하여도 效果的일 것이다

② 一貫煎 (滋養肝腎 疎肝理氣)

一貫煎이란 名은 根源이 하나인 肝腎을 함께 治한다는 뜻으로 肝腎 雙方을 고려한 補劑이다 日本에는 없으나 溫病의 處方으로서 中國에서는 肝炎에 대하여 대단히 多用하고 效果가 높은 藥이다 北京 中醫醫院 關幼波先生은 肝炎에 대하여 茵陳蒿湯과 陰을 補하는 一貫煎을 교묘히 運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構成과 解說

生地黃 15g, 枸杞子 6g — 養肝腎陰血

北沙蔘 5g, 脈門冬 5g — 清肺益胃(養金制木)

當歸 5g — 補血 活血

川練子 3g — 疎肝解鬱, 止痛

六味地黃丸의 熟地黃은 溫性이므로 화끈하게 上氣되는 症 등에는 바람직 하지 않으며 다소 清熱도 되는 生地黃이 나은 것이다 枸杞子는 潤藥으로 肝을 養血하고 肝의 굳은 性質을 抑制한다 沙蔘 麥門冬은 肺·胃에 작용하여 津液을 補한다 補陰血에는 끈끈하게 끈덕진 것, 津液을 補하는 산뜻한 藥이 配劑된다

肝病에 肺藥을 配用하는 것은 五行說에 關連하여 검토하면 自明하여지며 金(肺)은 木(肝)을 克하므로 肺를 滋養하여 강하게 하므로서 木의 勢의 增加를 抑制하는 것이다

이 方劑는 滋陰, 補血, 活血, 止痛 등 광범위하게 對處되는 優點으로 使用이 容易하다 혹 活血에 芍藥, 丹蔘, 食慾不振에 麥芽, 鷄內金 이러한 加減도 考慮되기도 한다

③ 滋水清肝飲(滋腎清肝)

白芍藥, 生地黃 各 12g

山茱萸, 白茯苓, 柴胡 各 6g

山藥, 當歸, 牡丹皮, 梔子 各 4 5g

澤瀉 3g, 大棗 2개

이 또한 肝陰虛에서 오는 肝炎에 多用한다 六味地黃丸과 加味逍遙散을 짜서 편성된 方이다 六味地黃丸으로 천천히 陰血不足을 치료하면서 加味逍遙散으로 疎肝清熱하여 肝을 疏通시킨다 養腎陰하면서 肝을 制하는 方劑이다

陰虛의 경우 虛火를 生하고 上氣나 微熱의 症狀이 나기 쉽다. 肝膽의 微熱, 活血藥으로는 柴胡, 靑고, 山梔子, 地骨皮, 丹蔘 등이 있다

4 肝膽濕熱

(1) 症狀

① 發熱 惡寒 濕熱의 邪氣가 侵入하여 체내의 正氣와 싸우고 있으며 감기와 같은 症狀이 있음

② 脇痛

③ 口苦 膽汁의 上逆으로 넘치는 것이다. 피부와 體表로 나오면 黃疸이 된다

④ 胸悶

濕이 停滯하여 食慾不振, 거북하다, 엷치는 느낌이 출현한다

⑤ 惡心 嘔吐 濕이 胃를 損傷하여 胃氣가 上逆하고 下降하여야 될 濁物이 逆上한다

⑥ 目赤 · 熱은 체내의 水分을 消耗하므로 尿量은 減少하고 眼赤하여지고 舌도 붉어진다

病理와 證	症 狀	治療原則	方 劑
肝氣鬱結 肝失疎泄 → 氣滯 絡痺	脇痛, 燥急, 喜怒 食욕부진, 트림 苔薄, 맥弦	疎 肝 理 氣	소요산 가미소요산 사력산 시호소간산 소시호탕
瘀血內停 혈류不暢 → 瘀阻 脇絡	협통, 痛症夜重 脇腹部 비괴 舌質紫暗	去 瘀 痛 絡	당귀芍藥散 계피복령환 도핵승기탕 복원활혈탕 별갈전환
肝陰不足 血不養肝 → 結脈 失養	협통 咽乾 심중煩熱 眩暈 眼精疲勞 舌紅少苔 脈細弦數	養 陰 柔 肝	육미지황환 杞菊地黃丸 一貫煎 滋水清肝飲
肝膽濕熱 肝失條達 → 膽不 疎泄 → 濕熱 은結	발열 오한 협통 口苦 胸悶 食욕부진 오심 구토 目赤 황달 소변황적 舌質紅 舌苔黃膩 脈弦數	清 熱 利 濕	龍膽사간탕 지령탕 茵陳蒿湯 치자백피탕 茵陳五苓散 대시호탕

□ 학 술

다 (肝窺目)

- ⑦ 舌質紅, 舌苔黃이 舌紅 苔黃은 熱의 存在, 이苔는 濕의 存在
- ⑧ 脈弦, 數 : 肝에 熱이 있음

(2) 治法 清熱利濕

(3) 方劑

① 龍膽瀉肝湯(清肝火 清熱利濕)

濕과 熱의 存在로 일시적인 肝의 抑制을 要할때 쓰이나 장기 사용할 수는 없다 目赤, 高血壓, 頭痛 등 肝火가 旺盛할 때 清肝火를 目標로 쓴다 또 帶狀包疹, 濕疹, 分泌物이 질질 흐르는 皮膚 등 濕이 얽힌 熱症에 清熱利濕의 目的으로 쓴다 肝炎에는 清熱利濕의 作用을 많이 利用한다

• 構成과 解說

草龍膽 茯苓 山梔子 — 清熱利濕 車前子 木通 澤瀉 — 利水泄熱

生地黃 當歸 — 養血柔肝

大量的 利水藥은 肝의 陰血을 消耗하므로 血을 補하고 肝을 和하게 할 必要性이 생긴다

柴胡 — 引經柔, 疎肝

② 茵陳蒿湯(清熱利濕, 退黃)

원래 本方은 黃疸치료 方이나 黃疸증상이 없어도 濕熱이라 하면 本方이 생각된다 黃疸는 陽黃과 陰黃으로 分類된다 濕熱이 原因으로 鮮黃色인 것을 陽黃이라 하고 체력이 弱화되고 寒濕의 침범을 당하여 色이 暗陰色인 것을 陰黃이라 한다.

• 構成과 解說

茵陳蒿 — 清熱利濕, 退黃(3月頃 採取된 것이 良質品, 苒, 葉)

山梔子 — 清熱利尿 大黃 — 清熱通便

체내에 들어박힌 濕熱을 尿와 便으로 外部에 排出한다

③ 梔子柏皮湯(清熱利濕)

이 處方의 構成은 山梔子 黃柏 甘草이다 清熱作用이 강하므로 熱이 높을 때 쓰인다

④ 茵陳五苓散(滲濕 清熱)

五苓散에 茵陳蒿를 加한 것으로 利尿作用이 강하여 黃疸症狀과 同時에 浮腫, 小便利症狀에 適合하다. 그러나 本方은 清熱作用이 藥하므로 茵陳蒿湯은 濕보다 熱이 많을때 茵陳五苓散은 熱보다 濕이 많을 때에 쓴다

⑤ 大柴胡湯(和解少陽, 內泄熱結)

小柴胡湯 + 小承氣湯의 方劑로서 小柴胡湯 보다 강하다.(유사점도 있으나)

便秘로 인한 腹痛, 膽石, 臍臟炎 등에서 腹部가 막혀서 아프다 便通이 안될 때에 쓰기 쉽다 利水作用은 弱하므로 浮腫이 있을 때는 利水藥을 加한다

이상은 日本 東京漢方臨床硏究會 開催 中醫師菅沼 宋氏의 講義 發表 內容을 外誌에 依하여 採擇한 것이다.

⑥ 雙樞湯

北柴胡 9~15g, 炒黃芩 9~12g, 炒川練子 9~12g, 製半夏 10~12g, 草紅花 9~10g, 白芷 9~12g, 芍角刺 3~6g, 片姜黃 9g, 劉寄奴(또는 錢草) 9~10g, 焦四仙 10g, 炒萊菔子 10g, 澤瀉 9~15g

水煎 二回分服

• 主治範圍

① 肝爲失和 ② 肝鬱克脾 ③ 肝肺氣鬱 ④ 木不疎土 ⑤ 子の 病이 母에 波及 肝의 病 腎에 영향 ⑥ 肝熱擾心 ⑦ 右脇隱痛 兩脇痛 ⑧ 慢性肝膽疾患으로 尿黃, 大便不利, 便當, 軟便 등 ⑨ 脇下 癥積 ⑩ 心煩易怒 頭暈 不眠 腹水隨伴 ⑪ 慢性肝膽疾患의 舌苔 白, 黃니 ⑫ 脈象 弦大 弦數, 弦滑 또는 弦沈.

• 加減法

- ① 中濕不和, 脘悶少食 舌苔白厚 加 蒼朮 6~9g, 草豆久 6~10g
- ② 氣血阻帶, 脇痛顯著 加 玄胡索 9g 枳殼 10g 製 乳香浸柔 各 5g
- ③ 瘀血, 固定脇痛 經少有塊(或) 加 錢草 10~20g 烏賊骨 6~9g 桂枝 6~9g
- ④ 胃納不良, 食少, 食慾不進 加 生谷芽 10~12g 陳皮 10~12g
- ⑤ 肝熱擾心, 心悸 不眠 多夢 健忘 加 珍珠母 30(先煎) 遠志 天竺黃 各9~10g 梔子仁 3g (輕熱症 夜交藤 15~20g)
- ⑥ 血絡瘀血(顔面, 胸部血絡脈(蜘蛛) 출현 加 錢草 10~15g 烏賊骨 6~9g 絲瓜絡 10g
- ⑦ 午後微熱 加 生白芍 12g 銀柴胡 10g 青蒿 15g
- ⑧ 肝膽熱盛 口苦 尿黃 目紅 加 梔子 6~10 草龍膽 3g
- ⑨ 脇下 疝塊 肝脾腫大 加 別甲(灸) 15~30(先煎) 生牡蠣 20~30g (先錢), 射干 10g 菝朮 三稜 各 3~7g 沙蔘 12~20g
- ⑩ 肝病累積, 脾濕不去, 腹部緊脹 小便 短少, 輕度の 腹水 加 大腹皮 12~15g 茯苓, 冬瓜

▣ 학 술

皮 30~40g 水紅花子 10~20g (猪苓 20g 澤蘭 15g을 代用하여도 可) 車前子 12~20g 澤瀉 30g

⑪ 氣分惡化영향 諸症狀 加重 加 香附子 10g 合歡花 6g

⑫ 肝膽鬱滯, 疎泄不良 胃失和不降으로 嘔逆, 便秘 上腹部, 脇部疼痛 舌苔不除 加 生자石 30g(先煎) ○○花 10g(布包) 生大黃 3~5, 生甘草 3, 炒五苓脂 9g

⑬ 膽結石 併有者 加 金錢草 30g 鬱金 鷄內金 各 10g.

⑭ 肝功能검사 장기 非正常(不正常) 同時 併用 五苓散(五味子 95g ○1 5~2g共爲末) 每服 3g 1日 1回 湯液調服

⑮ 硬便(常時) 長期肝病으로 目赤 혹은 月經閉止 노회末 0 3g 前後(Capsul 入)를 湯液에 調服 (肝引經藥)

⑯ 腹部善煖, 見涼隱痛 減·黃芩 6g 去 天練子

⑰ 飲食 正常者 去·萊菔子 焦四仙 (但 神국은 用之)

⑱ 口渴 顯著 去 半夏

⑲ 女子 月經不順 혹은 月經量少 去 : 劉寄勞 (換 荊草 15~30g)

⑳ 服藥후 脇痛이 더하여지는 경우 去 조角刺 減 片姜黃

× 이상 中醫教授 焦樹德의 日本 京都에서 개최된 中醫講演 一部에서 拔萃한 것임

《참고문헌》

中醫臨床 1990 6월호 東洋版社

成人病と 漢方 日本近畿大學醫學部 編

成人病의 漢方療法 寺師一文

漢方の 科學 山田光胤

中醫診斷と 治療 燎原

臨床醫의 漢方治療指針 張谷川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가 T. 54-7878)